

# 고려시대 제주 법화사의 역사지리적 고찰

오 상 학\*

## A Study 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Jeju Beophwasa Temple in the Goryeo Dynasty

Sang-Hak Oh\*

**요약** : 법화사는 고려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사찰로 조선중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일부에서는 장보고가 법화사를 창건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헌사료나 고고학적 유물이 없기 때문에 장보고와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보다는 고려시대 불교가 제주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비보사찰로서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원의 탐라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대사찰로 중창되어 원나라 황실의 원찰과 더불어 원 지배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화사의 입지에는 용천수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변 중심취락과의 접근성, 사원의 재정에 긴요한 경지의 확보 등이 입지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화사 주변의 벼농사 가능지역은 법화사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제주, 법화사, 비보사찰, 용천수, 취락

**Abstract** : Beophwasa was a representative temple that existed in Jeju island until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Because there are not historical records and archeological relics, it is impossible to insist that Jang Bogo established Beophwasa temple. It will be reasonable to say that Beophwasa temple was founded in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Buddhism in Jeju. After Mongolian domination over Jeju, Beophwasa became a temple of Mongolian imperial household and a stronghold. The site of spring water greatly influenced the location of Beophwasa temple, and the accessibility to central settlements, obtainment of arable land for temple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location. In particular, the rice farming region around Beophwasa temple was a helpful resource for economy of temple.

**Key Words** : Jeju, Beophwasa, Bibo Temple, Spring Water, Settlement

### I. 서론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모든 유적은 시·공간적 프리즘을 지닌다”.

이는 시간과 공간(역사와 지리)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의 역사 경관에 접근했을 때 그 경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 역사 경관에 대한 이해는 그 경관이 존재했던 시대상과 터전(공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시대라는 시간과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존재했던 법화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법화사는 고려시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조선 중기까지 제주의 불교문화를 선도하였다. 법화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화사상에 기초를 둔 사찰이다. 법화사상은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되어 통일신라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천태종의 성격을 띤 법화사상이 고려로 전승되었다. 제주의 법화사는 산복의 수정사와 더불어 산남을 대표하는 사찰로 유명하였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제주에 정착됨에 따라 명맥이 끊어졌지만 현재 발굴되는 유물들을 통해 당시의 법화사가 지녔던 위상과 역사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hsanghak@cheju.ac.kr)

현존하는 기록과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을 근거로 볼 때, 법화사는 13세기 이전에 창건되었다가 원나라가 제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가던 1269년에서 1279년 사이에 중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창건 시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9세기 경 장보고가 산동반도에 법화원을 창건했듯이 이곳에 법화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해상왕국의 중심지인 청해진(완도)과 가깝고, 신라·일본·중국의 무역활동 교류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서귀포시·법화사 복원추진위원회, 1985, 18-21). 이러한 입론을 토대로 법화사에서는 장보고와의 관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006년에는 복원되는 사찰지에 장보고 동상을 건립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고려시대 법화사가 지나는 의미와 실체들이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sup>1)</sup> 고려시대 법화사의 중창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굴 유물을 근거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적(역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또 다른 한 축인 공간(지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글은 공간적 관점에서 고려시대 법화사가 지나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법화사라는 절이 하필이면 왜 제주도에 세워졌을까? 일부의 주장처럼 장보고의 해상활동의 근거지로 세워진 절일까? 제주도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법화사지 전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법화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도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람배치와 같은 공간구조보다는 상대적인 위치에 주목하여 법화사의 공간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주도를 내외로 구분하여 대외적 관계망에서 지나는

법화사의 위상과 내부의 지역구조 속에서 지나는 법화사의 공간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시대 법화사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탐라의 대외관계와 해상교역

### 1. 고대 탐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해상교역

자연 환경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섬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면에서 제주도는 바다(해양)라는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바다라는 환경과 더불어 제주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주변 지역과의 거리(접근성)이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육지와 매우 가까운 섬은 육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섬은 그렇지 못하다.

제주도는 한반도와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쪽으로는 황해 건너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 남쪽의 동중국해에는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南西諸島가 포진하고 있다. 동해, 황해, 동중국해를 잇는 삼각형의 중심에 해당하고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의 삼국을 잇는 삼각형에서도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탐라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결절로 기능해 왔음을 최근까지 발굴된 유물로 확인된다.

고대 탐라를 거점으로 하는 항로는 출발항구와 도착항구를 이어주는 단선의 항로가 아니라 다양한 항로의 중간에 있는 경유항로이다. 해발 1995m의 한라산은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이나 되어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겐 자기 위치를 측정하고, 항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이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폭풍, 태풍 시 피항지로서 기능하기도 했고 장기적인 원양항해의 경우 물, 식량 등의 보급품을 얻는 장소로도 중요하였다(윤명철, 2000).

항해를 통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교류의 필요성, 바다라는 지형적 장벽을 극복할 수



그림 1. 법화사지의 위치

있는 항해 기술, 선박제조능력 등으로 볼 수 있다. 고대 탐라의 자연환경은 화산섬으로 인한 척박한 토양, 많은 바람, 경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을 비롯한 많은 물자가 부족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일찍부터 한라산의 풍부한 목재는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의 건조를 가능케 했다. 또한 바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바람과 해류를 항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의 기록은 비록 조선시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전통시대 제주도의 해상활동에서 바람과 해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육지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데는 반드시 서북풍으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동남풍으로 한다. 순조로운 바람을 만날 것 같으면 한 조각 외로운 범선이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건널 수 있다. 순조로운 바람을 얻지 못하면 비록 새와 송골매의 날개가 있을 지라도 별과 서리(星霜)로 변하여 건널 수 없다. 바다의 파도가 동남은 낮고 서북은 높다. 육지로부터 제주로 들어올 때에는 형세가 조류 흐르는 쪽으로 배가 내려가니 자못 쉽다. 제주로부터 육지로 나갈 때에는 형세는 거슬러 흐르는 조류 같아서 배가 위로 가므로 심히 어렵다. 그런 까닭으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에는 육지로부터 제주로 들어올 때 보다 두 배나 어렵다고 한다.<sup>2)</sup>

바람과 해류를 이용한 항해가 본격화되면서 원양 항해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 근

해를 통과하는 이국 선박의 경우 근처의 해류에 익숙하지 못해 좌초했던 사례도 많았다. 한라산 이북의 高齡田이란 곳은 중국 선박이 난파된 곳으로 조선시대에도 자기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sup>3)</sup> 이처럼 탐라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이후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고려시대 탐라의 해상교역

고대로부터 활발했던 탐라의 해상활동은 고려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정치적으로는 고려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한반도 본토와의 교류가 지배적이었지만 송나라나 원나라와의 직접적인 교류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4)</sup>

고대로부터 축적된 항해기술과 선박제조능력은 한반도 본토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르는 원양항해를 가능케 하였다. 1058년(문종 12) 탐라에서 목재를 벌채하여 큰 배를 만들어 송나라와 교류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선박 제조처로서 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대에 이르러는 탐라가 지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본 경략의 거점으로 삼아 전함 100척을 별도로 건조하도록 했고<sup>5)</sup> 이후에도 중요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원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원양항해를 통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원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고려시대 중국과의 원양 항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산견하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당시 해양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해상교역의 주된 관문은 산북 해안에 위치한 명월포였다. 崔溥의 『漂海錄』에는 고려 때 탐라가 대원에 통조할 적에 명월포에서 편풍을 만나 직로를 얻는다면 7주야 사이에 백해를 지나 대양을 건넜다고 하였다. 삼별초도 위장 이문경을 이곳으로 먼저 보냈고, 최영이 목호의 난을 진압할 때도 이곳으로 들어왔다.

명월포는 현재의 북제주군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당시 제주도 최대의 항구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중심지인 제주목이 한라산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산남보다는 산북이 제주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명월포가 제주의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해상 교류의 관문은 동쪽 화북포와 조천포 옮겨지지만 제주로 내항하는 배들의 상당수가 애월이나 명월쪽으로 표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조류나 바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명월포가 여전히 중요한 포구로 기능했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해안선이 화산암으로 덮여있는 제주의 경우 육지와는 달리 대포구가 발달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왜구가 여러 번 침략하였으나 한 번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암초가 온 섬의 해중에 깔려 있어서 정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무역을 목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상선이 수시로 내항하면서 대규모의 중개 무역항으로 성장했던 포구는 거의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섬을 둘러 가면서 지형적으로 배를 대기에 수월한 곳에 소규모의 포구가 발달했을 뿐이다.

고려시대에는 명월포뿐만 아니라 산남의 지역에서도 중국과 교류했던 포구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서쪽의西林浦와 홍로천이 원나라에 조회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탐라의 대외교류의 관문이 산북에 위치한 명월포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말해준다. 서림포는 지금의 대정읍 일과리에 해당하고 홍로천은 지금의 서귀항으로 추정된다.<sup>6)</sup> 따라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원과의 교류 포구로는 산북의 명월포, 서쪽 대정읍에 있는 서림포, 산남의 서귀포 등이다. 동부지역의 포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기 탐라의 동쪽은 원나라의 목장이 최초로 건설되기도 했던 지역이지만 대중국 교류의 관문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이 제주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왜구가 빈번하게 출몰했던 사실이 포구의 발달을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책에 제주 북서부의 명월포 이외에 서남쪽의 서림포와 정남쪽의

서귀포가 대원 교류의 포구로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들 포구와 법화사와는 무슨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부의 지역구조로부터 법화사의 입지를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 III. 고려시대 법화사의 입지 특성

#### 1. 고려시대 탐라의 행정구조와 취락

고려시대 탐라는 島 형태의 개별적 행정단위의 형태를 유지해 오다 1011년(현종2)에 朱記를 받음에 따라 군현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되었다. 1105년(숙종 10)에는 국호를 毛羅에서 耽羅로 고쳐 郡을 두었고, 1153년(의종 7)에는 耽羅縣으로 되었다가 다시 耽羅郡으로 칭해졌고, 고종연간(1213-1259)에는 濟州로 개명되었다. 1273년(원종 14)에는 삼별초 난의 평정을 계기로 원의 직할령으로 되었다가 1294년(충렬왕 20)에 환속되었다. 원의 직할령으로 있던 기간 중 1277년(충렬왕3)에는 東西阿幕을 설치하여 우마를 비롯한 각종 가축을 방목하였는데, 斷事官 또는 萬戶를 두어 목축을 주재케 하였다.<sup>7)</sup>

1300년(충렬왕 26)에는 본격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東西道縣을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귀일, 고내, 애월, 광지, 귀덕, 명월, 신촌, 함덕, 김녕, 호촌, 홍로, 예래, 산방, 차귀의 14개 현을 설치하였는데, 大村에는 戶長 3인과 城上 1인을 두고, 中村에는 戶長 2인을 두고, 小村에는 戶長 1인을 두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몽고족의 탐라 유입과 더불어 목축의 융성, 이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촌락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東道에 속하는 현으로는 신촌, 함덕, 김녕, 호촌, 홍로 등이었고, 西道에는 귀일, 고내, 애월, 광지, 귀덕, 명월, 예래, 산방, 차귀의 9개 고을이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보다는 서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동아막의 중심지인 수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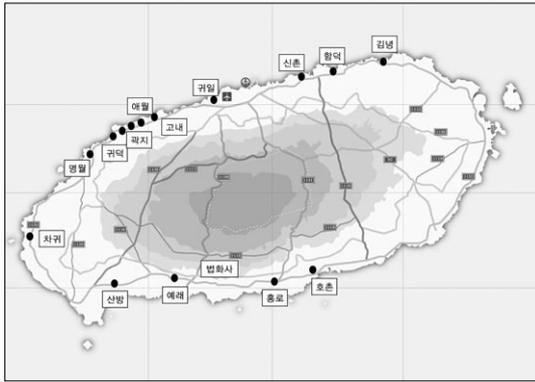


그림 2. 고려시대 제주의 속현 분포

(지금의 성산읍 수산리) 일대가 빠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라산의 남쪽에는 狐村(현재 남원읍 신례리·하례리)·洪爐(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猓來(서귀포시 예래동)·山房(안덕면 사계리)·遮歸(한경면 고산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북 고을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구조는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는 조선초기 태종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1416년(태종 16)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왕조실록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濟州都安撫使 吳湜과 전 判官 張畚 등이 그 땅의 事宜를 올렸다. 啓聞은 이러하였다.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漢拏山의 사면이 모두 17縣이었습니다. 北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의 東西道로 삼고, 靜海鎮을 두어 軍馬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고, 그리고 東西道の 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牧場을 점입하였으나, 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東西道の 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牧使가 있는 본읍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농사 때에 갔다가 오는 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중략... 원컨대, 이제부터 본읍에는 東道の 新村縣·咸德縣·金寧縣과 西道の 貴日縣·高內縣·匡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을 소속시키고, 東道の 縣監은 旌義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兎山縣·狐兒縣·洪爐縣 등 三縣을 소속시키고, 서도의 현감은 大靜縣으로서 본읍을 삼아 猓來縣·遮歸縣 등 두 현을 소속시키되, 후략...<sup>8)</sup>

위의 자료에 의하면, 山南의 고을 가운데 旌義縣에는 兎山縣·狐兒縣·洪爐縣 등 三縣, 大靜縣에는 猓來縣·遮歸縣 등 二縣이 소속되었다. 앞서 검토한 고려시대의 속현으로는 狐村·洪爐·猓來·山房·遮歸 등이었는데, 여기서는 兎山縣·狐兒縣·洪爐縣·猓來縣·遮歸縣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촌(狐村 : 狐兒)·洪爐·猓來·遮歸는 동일하나 山房이 兎山으로 바뀐 것이다. 정의현이 설치된 동쪽이 서쪽의 대정현보다 고을 수에서 하나가 더 많아졌는데,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시대 취락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을 앞질러 성장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선시대 대정과 정의 두 현의 인구면에서도 대부분 정의현이 대정현을 앞서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인구성장이나 취락발달에서 정의현이 대정현보다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빈번했던 왜구의 침입이 감소되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취락의 발달이 미약했던 사실도 왜구의 침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려시대 법화사의 창건, 이후 원 직할령 시기 법화사의 중흥 등은 법화사 주변의 취락발달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제주의 북서부 지역의 취락발달이 현저한데 이 지역의 토양은 사질양토를 함유하여 제주도 지역 가운데 가장 토양이 우수한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북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취락의 발달은 점차 서쪽으로 확대되고 또 다시 산남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예래현과 홍로현이 산남의 중심 취락으로 성장하였는데, 법화사의 중흥은 이들 취락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취락의 성장과 사찰의 입지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탐라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전래를 확인할 수 없다. 고려 이후 한반도 본토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11세기 전반부터 개경의 팔관회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1058년(문종 12)에는 나무를 벌채하여 육지의 사찰 건립에 사용하기도 했다.<sup>9)</sup> 현재까지 진행된 절터의 발굴을 통해 볼 때, 법화사를 비롯하여 수정사, 원당사, 존자암 등이 고려시대에 창건된 절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많은 절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 제주에 존재했던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목에는 尊者庵, 月溪寺, 水精寺, 妙蓮寺, 文殊庵, 海輪寺, 萬壽寺, 江臨寺, 普門寺, 逝川庵, 小林寺, 觀音寺 등의 현에는 靈泉寺, 成佛庵, 대정현에는 法華寺가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찰기록에는 충렬왕(1275-1308) 무렵에 활약했던 승려 慧日의 詩가 일부 사찰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사찰을 추려볼 수 있다. 제주목의 수정사, 묘련사, 보문사, 서천암 대정현의 법화사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억불숭유를 기치로 내걸었던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사찰들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에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시대의 사찰들은 어느 시기에 창건되었을까? 창건 연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유물의 발굴이 없는 한 확답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고려시대 불교의 변천과정을 통해 볼 때 탐라와 고려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창건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팔관회와 같은 개경의 불교 행사의 참석을 통해 불교를 서서히 수용하기 시작했고 탐라의 성주나 토호들의 본격적인 불사 건립은 11세기 후반부터나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찰의 창건과 관련한 기록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으로는 수정사에 관한 『남사록』의 기록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사는 광지역 서쪽에 있고, 주에서 15리가 되는데 곧 원 때 황후가 세운 것이며 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화려하다. 충암기에도 이르기를, “元朝의 옛 건물로서 우뚝 높이 서서 홀로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도 근천의 수정사 뿐이다”고 하였다. 지금은 퇴폐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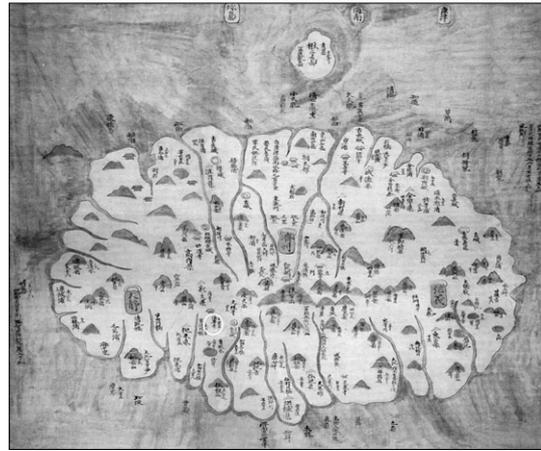


그림 3. 조선강역총도의 제주 지도

으나 수선하지 아니하고 다만 비가 새는 집 수간만 있어 띠로 지붕을 덮고 그 안에 불상 두 대신구가 있으니 중국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sup>11)</sup>

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정사는 원의 탐라 지배 시에 세워진 절로서 원 황실의 주도하에 창건되었다. 남쪽에 세워진 법화사에 버금가는 규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정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는 1300년(충렬왕 26) 원나라 奇皇后가 塔刺赤을 파견하여 牛馬를 水山坪에 방목했을 때 창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그러나 현재의 수정사지에서 발굴되는 유물 가운데 9-10세기의 순창자도 있어서 고려전기에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124). 이후 수정사는 산북의 대표적인 사찰로 기능하면서 조선전기(1521년)에 이르러 중수되기도 했다.

한편, 이들 고려시대의 사찰의 분포와 입지를 보면 섬의 중심지인 산북의 제주목을 중심으로 사찰이 집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취락의 중심지인 屬縣을 중심으로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뜻한다. 한라산의 존자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찰은 중심 취락과 인접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적 특성에서 연유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제주도에서는 취락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용천수의 유무인데 사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찰이 물을 얻기가 쉬운 중심 취락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중산간 지대 이상에서는 거의 사찰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 제주의 사찰들이 수행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교화와 기복의 현실적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고려시대 탐라 사찰의 특성은 이후 불교가 쇠약해지면서 사찰의 중들이 부인을 두면서 세속화되는 현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sup>13)</sup>

탐라 사찰의 입지적 특성은 『조선강역총도』의 제주 지도(그림 3)에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강역총도』는 고적과 사찰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일종의 역사부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4)</sup> 지도에는 고려시대 제주도의 속현과 사찰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서도 사찰과 취락과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 3. 제주 법화사의 입지 해석

법화사는 한라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대포리 해안에서 약 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 있다.<sup>15)</sup> 법화사지의 표고는 160m에서 170m에 이른다. 절터는 뒤편 220m 높이의 구릉에서 능선이 동서로 뻗어 내려 온 ‘ㄴ’ 형태 지형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략 가로 동서 260m, 남북 500m의 완만한 지형이다. 절터의 앞에는 해발 165m의 구산봉과 앞 능선이 포진해 있으며 서쪽 1km 지점에는 건천인 앞내가 위치하고 있다. 지형은 남쪽과 동쪽이 낮고 북쪽과 서쪽이 높으며, 경내에 복원된 건물인 금당지에서 남쪽으로 2m의 높이차이가 있는 능지가 3,000여평의 넓이로 형성되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7, 27).

법화사가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임을 감안한다면 법화사의 입지에 풍수적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더구나 비보사찰로 지정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풍수지리적 사고가 법화사의 입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형 자체가 전형적인 풍수 형국을 이루는 육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수적 터잡기의 논리에 따라 법화사의 입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재의



그림 4. 최근 복원된 법화사의 모습

법화사지를 보더라도 풍수적 사신사나 형국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풍수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법화사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법화사의 창건 당시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용천수의 유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척박한 화산암 토양으로 이루어진 제주의 경우 용수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중산간 지대에 광범하게 형성된 목장지대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은 언제나 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법화사의 입지로 섰으면서 당시 중심 취락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원된 대웅전의 뒤편과 동편에는 두 개의 큰 용천수가 있다. 특히 뒤편의 용천수는 과거 하원동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었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였다.

대규모의 사찰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법화사는 고려왕조의 비보사찰로 지정되었고, 원 황실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되어야 했다. 법화사 주변 일대는 수량이 풍부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벼농사가 가능했던 곳이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토양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했다. 지금의 성산읍 종달리 지역,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하논 일대, 강정동 일대와 더불어 법화사 주변 지역이 벼농사가 가

능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법화사의 입지와 관련하여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절터와 羅漢殿의 자리에 주춧돌과 섬돌을 살펴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니 그 전성기에는 굉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단지 초가 암자 몇 칸만 남아 있다. 그 서쪽에는 물맛이 좋은 샘(법화샘)이 있는데 절 앞에 있는 눈에 물을 댈 다. 서쪽에는 법화과원이 있다.<sup>16)</sup>

이 기록에서도 법화사 서쪽에 샘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샘의 물을 이용하여 법화사의 앞쪽에 있는 논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고려말 慧日禪師의 시귀 중에 ‘法華庵畔物華幽(법화암 물가 언덕에 물화가 그윽하고)’ 이라는<sup>17)</sup> 것으로 볼 때 북쪽의 샘에서 물이 흘러 내려 고이면서 넓은 늪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다시 수전으로 개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발굴에서도 법화사 남쪽 지역에서 넓은 늪지층이 확인되어 과거 수전 지역임이 입증되었다.

법화사의 입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화사에서 上大路를 통해 산북 지역과 연결될 수 있었다. 실제 조선시대에 법화사는 산북의 월계사, 수정사와 함께 나그네들이 자고 가던 곳이기도 했다.<sup>18)</sup> 특히 법화사가 위치했던 곳은 말을 키우던 8소장의 중심지로서 매년 이곳에서 말을 점검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로 판단해 볼 때 법화사의 입지에는 용천수와 같은 자연적 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도로망, 그리고 재정보호를 위한 경지 획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IV. 제주 법화사의 기능

### 1. 고려왕조의 裨補寺刹

고려시대 법화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왕

조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조선초기의 상황이지만 고려시대로 유추해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議政府에서 제주의 法華·水精 두 절의 노비의 수를 아뢰어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濟州 牧使의 公文에 의거하면 州境에 裨補寺刹이 두 곳인데, 수정사에는 현재 노비 1백 30구가 있고, 법화사에는 현재 노비 2백 80구가 있으니, 비옥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寺社의 예에 의하여 각각 30구를 주고, 그 나머지 3백 82구는 典農에 붙이소서.” 하니, 그 대로 따랐다.<sup>19)</sup>

위의 기록에서는 수정사와 법화사가 제주의 대표적인 비보사찰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는 법화사의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으로 판단된다. 조선초기 태종 때 법화사에 노비 280구가 있었으니 규모로 볼 때 당시 제주에서 가장 컸던 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법화사가 고려왕조의 후원을 입은 비보사찰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보사찰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裨補는 地理(風水)的 조건을 보완하는 인문적 행태를 일컫는 범주로서, 자연과 문화의 상호적 논리에서 출발한다. 비보는 풍수상 凶地일지라도 적절한 비보적 수단과 방책을 통해 길지적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람은 자연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비보의 法式은 협의의 裨補法과 壓勝法(혹은 禳鎮法)으로 구성된다. 비보는 지리환경의 부족한 조건을 더하고 복돋는 원리이고, 압승은 지리환경의 과한 조건을 빼고 누르는 원리이다(최원석, 2000; 권선정, 2003).

한국에서 비보관념의 형성은 불교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7세기경 신라시대부터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신라 하대 이후 풍수가 강력한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불교는 풍수와 교섭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교는 풍수와 결합하여 풍수사탑이라는 비보사탑이 출현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적 진호신앙에 의거한 사탑비보가 왕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나말려초에는 풍수사상의 성행과 지방호족의 득세로 말미암아 풍수적 동기에 의한 비

보사탑이 지방 요처에 설치되었다(최원석, 2000).

불교의 불력과 풍수의 지력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조로 삼았던 고려 시대에는 비보사찰의 건립이 더욱 활발하였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도선의 비보사탑설을 기초로 國家裨補所를 개성에 설치하였고, 1197년(신종 원년)에는 ‘山川裨補都監’이라는 비보 관청이 설치되어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국토를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의 비보사탑은 이미 11세기 중반부터 사찰의 과도한 창건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시켰고 12세기 말에는 최충헌이 재상들의 원당을 철폐할 것을 건의하며 『道說密記』에 기록된 사찰 이외에는 寺社田과 柴地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민왕대에 이르면 많은 비보사찰이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어서 왕이 重修를 명하기도 했다(이병도, 1980).

법화사와 수정사가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곤란하다. 실록의 기록에서처럼 조선초기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조선중기까지 명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 이미 대찰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비보사찰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훼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시기에 비보사찰로 지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고려의 어느 시기에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조선초기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법화사의 창건 때부터 비보사찰로 지정되었을 수도 있다.<sup>20)</sup> 비보사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호종단 설화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속설에 전하기를, 한라산신의 아우가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고려 때에 송나라 胡宗묘이 와서 이 땅을 壓禳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신이 화하여 매가 되어서 뿔대머리에 날아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서 종단의 배를 쳐부수자, 종단은 서쪽 지경 비양도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sup>21)</sup>

여기에 등장하는 호종단은 실재의 인물로 1106년에서 1146년경에 걸쳐 고려에 와서 벼슬을 지냈으나

탐라에 와서 지기를 눌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승을 잘 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고려사』에도 기록되어 있다.<sup>22)</sup> 壓勝은 지리환경적으로 과한 부분을 누르는 것으로 비보술에 해당한다. 비보술에 능한 호종단이 실제로 제주와 오지는 않았을 지라도 제주의 땅을 압승했다는 것은 이 무렵 제주에서 비보적 장치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의 비보적 장치는 바로 비보사찰의 창건(또는 지정)이라 할 수 있다. 비보사찰 창건의 목적은 국내의 산천을 비보하여 나라의 基業을 연장시키는 데 있다.<sup>23)</sup> 고려왕조가 제주에 비보사찰을 창건한 것은 한라산의 강한 기운을 눌러 개경의 지덕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특히 고려정부는 1105년(숙종 10)에 毛羅를 耽羅로 고쳐 군을 두면서 제주를 정치·행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라산의 강한 기운을 누르는 비보사찰의 건립은 제주를 고려의 지배체제로 포섭하기 위한 상징 장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의 빈번한 반란을 제압하고 완전히 본토의 통제하에 두려는 정치적 의도도 작용했던 것이다.

## 2. 원나라 황실의 願刹

비보의 목적으로 창건되었던 법화사가 이후 많은 사찰의 난립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서서히 쇠퇴하다가, 원의 탐라 지배에 즈음하여 원 황실의 지원으로 번창했다고 볼 수 있다. 법화사지에서 발굴된 명문기 와에는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이란 글귀가 있다. 이는 법화사의 중창이 지원 6년인 1269년(원종 10)에 시작하여 지원 16년인 1279년(충렬왕 5)에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법화사가 중창되는 시기는 원이 탐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눈독을 들여오다가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던 때로 아울러 이 시기에 원의 良工이 만든 아미타삼존불이 안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현규, 2009). 법화사의 중창은 원의 탐라지배 강화와 아울러 이곳에 온 원나라 사람의 종교적 안식처로 삼을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탐라 목호의

세력 기반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김일우, 2002)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원의 탐라지배 강화와 맞물려 법화사가 중창되었다 하더라도 몽고인 목호들의 세력기반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하다. 최영이 목호의 반기를 평정하려 탐라로 출발할 때 군사들에게 지키는 자(守者)를 동요치 말라는 엄명을 내렸는데, 비보사찰로 보이는 佛宇와 道殿, 神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24)</sup> 따라서 법화사와 같은 비보사찰이 목호들의 근거지로 기능했다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법화사는 몽고의 목호들의 근거지보다는 원나라 황실의 願刹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982년에서 1997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雲龍文 막새, 雲鳳文 막새, 각종 기와류, 청자·분청사기·백자·중국도자기 등의 자기류, 開元通寶 등이 출토되었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121-122). 이들 출토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운봉문과 운용문 막새이다. 용과 봉황 무늬가 있는 막새는 고려시대에는 왕실 건축물 이외에 사용이 금지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유물은 몽골 콩두미 궁전에서 발굴된 막새와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강창화, 2000)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찰로 판단된다. 원은 제주를 직할령으로 지배하면서 법화사를 원나라 황제 세조의 원찰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중창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원나라 세조가 신봉하는 관음신앙에 근거하여 남송과 일본 정벌의 武運과 황제의 祝壽 등을 염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원 황실의 원찰이었던 법화사는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직할령인 제주의 지배를 위한 정치·군사적 기능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원은 남송과 일본 정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더 나아가 제주의 물자를 계속적으로 거두는데 법화사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김일우, 2000).

## V. 결 론

이 글은 고려시대 법화사의 입지 해석을 토대로 당시 법화사가 지녔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역사지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론적 형태로 고찰해 보았다. 법화사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공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법화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장보고 창건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문헌사료나 확실한 고고 유물의 발견이 없는 상태에서 장보고 창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장보고 창건설은 고려시대 법화사가 지녔던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캐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완도 청해진의 법화사와 제주의 법화사는 그 입지에서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화사의 山南 입지에 대한 해석이다. 장보고 창건설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는 법화사상의 특성에서 찾고 있는데 대부분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남쪽 해안은 중국, 일본 사단항로의 중간 경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화사도 산남에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화사는 해안가에서 4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해의 안전 기원을 위해 창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주도 내부의 취락 발달과 맞물려 창건·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화사의 입지에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용천수가 법화사의 입지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변 중심취락과의 접근성, 사원의 재정에 긴요한 경지의 확보, 교통로 등이 입지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화사 주변의 벼농사 가능지역은 법화사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

주도와 같은 척박한 토양을 지닌 조방적 한전농법 사회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水田의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넷째, 고려시대 법화사는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고려왕조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는 한라산의 강한 기운을 압승하여 개경의 지덕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징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원나라가 제주를 직할령으로 지배할 시기에 법화사의 중창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의 원찰로서 황실의 안녕을 염원하는 도량이자 제주 지배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 註

- 1) 발굴조사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일련의 보고서로 정리되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87; 제주대학교박물관, 1991;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2;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7).
- 2) 李健, 『濟州風土記』 『葵窓集』 卷 5.  
其入也必以西北風 其出也必以東南風 若得順風 一片孤帆 朝發夕渡 不得順風 雖有鷹鷂之翼 星霜之變 無以可渡 而海波東南低西北高 入去時則勢如順流 而下舟行頗易 出來時則勢若溯流 而上舟行甚難 故出來之艱有倍於入去時云.
- 3) 李元鎮, 『耽羅志』, 濟州, 古跡.
- 4)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사료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고종36년(1244) 일본 상선이 태풍을 만나 제주도 근처에서 파선되었던 사실을 통해 표류나 표착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려사절요』에는 고종 46년(1259년) 부사 羅得瓊으로 방어사를 겸임케 하였는데, 이 때 朝議는 본주가 海外巨鎮이고 宋商과 島倭들이 무시로 왕래함으로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자고 했던 것이다(『高麗史節要』 제18권, 元宗順孝大王一, 경신 원년).
- 5) 『高麗史』 권26, 世家, 元宗 9년 6월, 10월조.
- 6)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는 서귀포가 후풍처로 기록되어 있다. 홍로천의 하루에 서귀포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홍로천은 바로 서귀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7) 이 때 설치되었던 동서아막은 각각 성산읍 수산리와 한경면 고산리로 추정되고 있다.
- 8) 『太宗實錄』31권, 태종 16년 5월 정유.
- 9) 『고려사절요』 권5, 문종 인효대왕
- 10)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이외에도 安心寺, 郭支寺, 元堂寺, 頓水庵 등의 사찰이 더 수록되어 있다. 이 절들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 보아 새로이 창건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전 시기에 존재했던 사찰로 보인다. 또한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는 월계사, 묘연사, 광지사, 법화사 등이 당시 폐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11) 金尙憲, 『南槎錄』 권3, 10월 18일.  
按水精寺在郭支岳西 距州十五里 卽元時皇后 所崩顯刹制頗宏麗 沖庵記亦云 元朝舊物 齒然獨存者 惟都近川之水精寺云 今則頽廢不修 只有漏屋數間 蓋以茅茨中 有佛像二大軀 元時自中原出來者云
- 12) 金錫翼, 『耽羅紀年』 外書, 권1, 耽羅
- 13) 金尙憲, 『南槎錄』, 권1, 9월 22일.
- 14) 최근 이 지도는 규장각 외에도 사찰에서 발견되었는데,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지도이다. 경복대에서 영인본을 출판하였다.
- 15) 법화사의 입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는 山南이라는 위치에 주목하였다. 이 또한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제주도 남쪽은 당시 중국, 일본을 잇는 해상 항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화사는 해상항해의 안녕과 무사를 비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법화사상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상항해의 안녕을 비는 곳으로는 법화사가 위치가 내륙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라면 해안에 가까운 곳에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 16) 李元鎮, 『耽羅志』 大靜縣, 佛宇.
-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大靜縣, 佛宇條.
- 18) 金尙憲, 『南槎錄』 권3, 10월 14일.
- 19) 『태종실록』 15권, 태종8년 2월 정미.
- 20) 법화사의 비보사찰 지정시기와 관련하여 김일우는 법화사가 중창된 이후 구체적으로는 1294년(충렬왕 20)에서 1300년(충렬왕 26) 사이의 시기로 추정하였다. 이 시기는 몽고로부터 제주를 돌려 받은 후 제주에 대한 연고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던 때로, 충렬왕은 제주민을 회유하면서 제주가 자신의 영역임을 상징화하는 차원에서 법화사를 비보사찰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김일우, 2002: 2003).
- 21)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祠廟.
- 22) 『高麗史』 권97, 列傳10, 諸臣.
- 23) 『高麗史』 권77, 百官志2, 諸司都監各色條.
- 24) 『高麗史』 권113, 列傳, 崔瑩傳.

## 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李健, 濟州風土記  
李元鎮, 耽羅志

崔溥, 漂海錄

金尙憲, 南槎錄

강창화, 2000,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  
도사연구 9.

강창화, 2001, “발굴유적답사-탐라의 옛 사찰 법화사  
를 찾아서,” 삶과문화 1.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권선정, 2003, “비보풍수와 민간신앙,” 지리학연구 37(4):  
427-441.

김동전, 1999, “제주 법화사의 창건과 그 변천,” 탐라  
문화 20.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김일우, 2002,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  
상,” 한국사연구 119, 한국사연구회.

김일우, 2003, “고려 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서귀포문화 7.

박종서, 1984, “한국사찰의 분포유형 고찰,” 지리학연구  
9(1): 341-361.

박현규, 2009, “제주도 法華寺 三尊佛像과 南京 大報  
恩寺의 관계,” 중국사학회 58.

서귀포시·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1985, 지방문화재  
제주법화사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요약집.

윤명철, 2000,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고대 동아시아중  
해의 해양교섭에 관한 연구(고대 항로를 중심  
으로),” 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  
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李丙燾, 1980, 高麗時代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이청규·강창화, 1993, “법화사지 발굴 조사와 그 성  
과,” 서귀포시 2.

제주대학교박물관, 1987, 법화사지 간략조사보고.

제주대학교박물관, 1991, 법화사 추정연지 발굴 조사  
보고.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2, 법화사지, 제주대  
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0집.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7, 법화사지, 제주대  
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9집.

진영일, 2008, 고대중세 제주역사산책, 제주대학교 탐  
라문화연구소.

최원석, 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접수 2010년 1월 15일 심사완료 2010년 2월 25일)